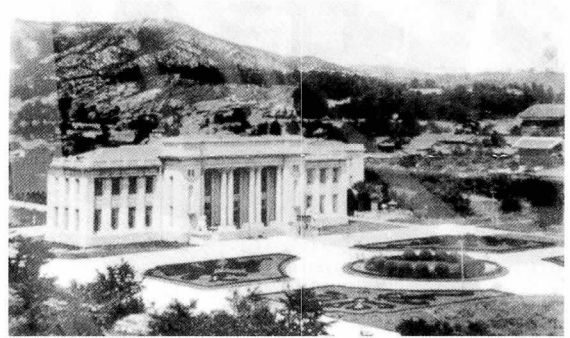


식민지 통치 정당화를 위한 '시(視)의 정치학'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스며든 제국주의적 지배 이데올로기

최석영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세워진 배경에는 민족의식 및 제국의식의 함양과 관련된 '국민교육'의 필요성이 작용하고 있었다. 일제가 이를 통해 노린 것은 '시(視)의 정치적 효과다. 박물관 당국은 타율적이고 지배받은 조선고대사를 전시해 조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려 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식민지의 지배논리를 획득하고자 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한일 양국 문화의 교묘한 비교전시를 통해 내선일체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자 했다. 사진은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박물관.

서구에서 박물관이 등장한 것이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대체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던 반면, 한국의 경우 박물관은 식민지 권력에 의해서 '출현' 하게 됐다. 그러면 박물관 역할 등에서 양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는 무엇인가. 이는 한국 박물관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근대적인' 박물관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도굴된 문화재의 전시공간, 이왕가박물관

박물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배경에는 민족의식 및 제국의식의 함양과 관련된 '국민교육'의 필요성이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서구에서 근대적인 박물관은 내부적으로 절대왕정의 붕괴와 시민혁명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로써 이전의 왕조들이 대대로 보전해왔던 진기한 물건들은 박물관 공간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수 있었다.

우리의 상황은 어땠는가.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박물관으로 말해지는 이왕가박물관(1909년 11월 개관)에도 서구와 같이 조선시대 왕조 대대로 전해져 온 진품들이 전시됐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이왕가박물관이 골동품상들의 최대 수요자였다는 것은 바로 이왕가박물관이 도굴된 문화재의 전시 공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왕가박물관은 석조전(石造殿)을 개조해 덕수궁에 근대 일본 미술품을 전시한 이왕가미술관이 설립된 1938년에 이곳으로 통합·이전됐다.

그렇다면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이를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출현 과정부터 전시유물의 구성, 특별전 등을 통해 살펴보자. 일제는 1915년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舊)경복궁' 안의 궁궐들을 파괴하고 새롭게 전시장을 마련해 '시정(施政) 5주년을 기념'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라 하는 박람회를 열었다. 대대적인 선전과 함께 개장한 조선물산공진회는 두번에 걸쳐 개최식(9월 12일과 10월 1일)을 열고 서치라이트 등을 동원해서 야간에도 개장하는 등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렀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건립은 바로 이 조선물산공진회와 직접 관련돼 있다. 총독부는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하기 위해 새로 지은 진열관 가운데 미술관의 처리문제를 놓고 논의한 결과, 박물관으로 용도를 전환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15년 12월 말에 역사적인 조선총독부박물관이 등장했다.

여기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건립 경위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박물관이 실제로는 근대적인 박물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환기하고 싶어서다. 재일사학자 이진희씨에 따르면 박물관의 건물과 수장고는 콘크리트 건물인데, 이것으로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유물들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경복궁의 회랑을 창고 대신 사용하고 있었으며, 발굴품들은 굴 상자에 넣어 그 안에 산더미처럼 쌓아뒀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수장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대형 방공호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을 무시했다. 해방 이후 조선의 고적조사 및 박물관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총독부의 조선 고적조사 및 보존사업을 '기념비적'이라고 호언한 것은 전혀 실상과 다르다.

타율적이고 지배당해은 조선의 역사 강조해

정해진 박물관 공간에 모든 유물들을 전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어떤 유물들을 전시할 것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총독부박물관에는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유물들이 주로 전시됐다. 우리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를, 그 시대의 어떤 유물을 어떻게 강조하려고 했는지 《총독부박물관진열도감》을 토대로 재구성해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한국의 고대사 부분에 가장 많이 집착했고 이를 중점적으로 재현했다. 반면에 일제 강점기 이전의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현저히 낮은 전시비율만을 할애했을 뿐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 단 순히 박물관의 자체 유물 보유량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차이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제의 조선통치방침에 대한 선행연구에 비춰서 풀어야 할 문제지만, 간단히 요점만 이야기하자면 바로 일제의 조선고적조사의 배경과 관련이 있다. 거기에는 당연히 고적발굴을 통해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즉 식민지적 현실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고대 조선의 타율적인 역사와 지배당한 역사를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뒀던 것이다. 또한 일제는 고고학적 조사와 발굴을 통해 먼 과거의 역사를 실감나게 보여줬고, 이런 근대적인 과학의 일사분란한 분류법 앞에서 당시 조선인들은 심리적인 충격을 느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측은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문화를 '보살피는' 주체가 바로 총독부라는 의식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다.

박물관의 전시기법을 보면 그 전시의 의도 내지 성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을 견학한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나중에 평양부립박물관장이 됨)의 관람기를 토대로 추정해보자.

“임나(任那)의 유물이 있는데 이러한 유물들은 신라의 것보다도 백제의 것보다도 변함 없이 일본의 유물에 가까운 느낌이 든다. (중략) 임나의 유물으로써 삼한지방의 유물이 끝나는데 다음의 진열장에는 이상 각지의 고분에서 출토한 토기들이 진열되어 있어 그것과 나란히 일본에서 출토된 일군의 축부토기(祝部土器)를 배치하여 그 형식이나 소성(燒成)의 유사성으로부터 일선문화(日鮮文化)의 균등성이 교묘하게 설명되어 있었던 것은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높은 문맹률 고려해서 시각적 연출로 메시지 전달해

이를 통해서 볼 때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전시방식은 한일 양국 문화의 비교전시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의 전시방식도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전시방식으로부터 일정하게 영향을 받았

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주분관의 전시방식에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전시방식을 추정해보면, 비교전시뿐만 아니라 유물을 설명할 때도 유물명칭을 한자와 영문자로 병기했을 것이다. 이는 유물에 대한 학문적인 성과의 제시보다는 당장 '시각적인 효과'에 최우선을 뒀다는 것을 말해주며, 현실적으로 문맹자가 많았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방식이었다. 문화나 사회를 영상화하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듯이, 일본은 시각적이고 영상적인 전시기법을 통해 일제=지배권력(은혜를 베푸는 자), 조선=중속적 입장(수혜자)이라는 양극적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노력했다.

일본박물관협회에서는 명치절(明治節)을 기회로 1933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전국 '박물관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전을 개최할 뿐만 아니라, 관람료 인하, 각종 강연회와 영화회 개최, 이와 관련된 각종 장식 및 포스터 등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제의 정책홍보에 힘을 기울였다. 조선총독부박물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를 들면 1938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박물관 주간 동안 고대 한국과 일본 문화의 '같은 뿌리'를 표현하고자 관련 자료 특별전을 열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 특별전에 어떤 전시기법이 동원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총독부는 박물관을 '사회교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상황이었고, 이는 식민지 국민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이 전시유물을 눈으로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전시회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기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 진열한 유물 가운데 석포정(石炮丁)과 석축(石鋤) 등 조선에서 출토된 것도 내지(內地, 일본)의 야요이식(彌生式) 토기와 함께 나온 석기와 서로 닮아 있다”는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장 사세 나오에(佐瀬直衛)의 글은 연구결과와 신빙성 여부와는 별도로 특별전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케 한다. 이런 한국과 일본의 고대문화유물의 형태적 유사성을 포함한 '일선문화동원'(日鮮文化同源)의 노력은 그 목적이 일반인들의 동의 내지 수공을 얻어내는 데 있었으며, 이는 나아가 식민지 통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

최석영씨는 일본 국립히로시마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재직중이다. 《한국 근대의 박물관·박물관》(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 등을 펴냈고, 《전통의 날조와 창조》(민족의식의 역사인류학) 등을 번역했다.